

주요 주간 동향 리스트

2020년 10월 2호

◆ 번역 기사

1. 중국 국가해양정보센터 「2020 중국 해양경제 발전지수」 발표
国家海洋信息中心发布了《2020中国海洋经济发展指数》
2. 선전시(深圳市), 글로벌 해양중심도시 구축을 위한 해양신성(海洋新城) 건설 계획
建设全球海洋中心城市，这里要造一个新城！
3. 「중국 도시 해양발전지수 보고(2019)」 발표
中国城市海洋发展指数发布 上海先发优势显著
4. 「싼야시(三亚市) 잠수활동 산호초 생태파괴 손해보상 방법」 발표
三亚市发布潜水活动珊瑚礁生态损失补偿办法

◆ 기타 동향

5. 「2019 전국 해수이용 보고」 발표
《2019年全国海水利用报告》发布了
<http://www.hellosea.net/News/11/2020-10-15/78911.html>
6. 중국 국내 최초 해양경제관련 주식지수 정식 발표
国内首只权威海洋经济主题股票指数正式发布
<http://www.hellosea.net/News/11/2020-10-15/78906.html>
7. 광시자치구, 올해 중앙해양생태보호·복원자금 4.86억 위안 획득
广西今年获中央海洋生态保护修复资金4.86亿元
<http://www.hellosea.net/News/11/2020-10-16/78926.html>
8. 중국 최초 국내외 합자로 해상풍력발전 사업 추진
全国首个中外合资海上风电项目落地揭牌
http://www.xinhuanet.com/power/2020-10/21/c_1210851433.htm
9. 텐진 해양플랜트산업(인재)연맹 설립, 국가급 해양플랜트산업 클러스터 구축 계획
天津海洋装备产业（人才）联盟成立 打造国家级海洋装备产业集群
<http://www.hellosea.net/News/11/2020-10-26/79054.html>
10. 중국 보하이완(渤海湾) 첫 천억㎡급 대형 천연가스 실험구 생산 가동
渤海湾首个千亿方级大型天然气田试验区投产
<http://www.hellosea.net/News/10/2020-10-26/79068.html>

작성자 : 진선선 중국연구센터 연구원

감수자 : 한광석 중국연구센터 센터장

김은우 중국연구센터 부연구위원

(kmishanghai@naver.com)/+86-21-6090-0395)

중국 국가해양정보센터 「2020 중국 해양경제 발전지수」 발표

■ 중국 국가해양정보센터는 10월 15일 「2020 중국 해양경제 발전지수」를 발표했다

- 2019년 해양경제 발전지수는 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2011~2019년 중국 해양경제 발전지수는 105.6에서 134.3까지 상승했으며, 연간 평균 3.3% 증가했음
- 해양경제 발전지수는 중국정부가 2016년부터 연속 5년 동안 발표해왔는데, 2019년 중국의 해양경제는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발전추세를 유지해 왔으며, 경제력이 견실하게 성장하고, 주민 후생복지도 지속적으로 증진되었다고 평가하였음

■ 해양경제규모의 지속적인 확대

- 2019년 중국 해양생산총액이 8조 9억 위안을 초과하여 전년대비 6.2% 증가했음. 해양경제총액이 연해지역 생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7%를 초과했고, 국민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율은 9.1%에 달했음
- 2019년 중국 해양경제의 성장속도가 완화됐지만 품질이 제고되었으며,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도는 안정적인

■ 해양산업구조 개선

- 해양제조업의 2019년의 부가가치액은 30,039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3.8% 증가하여 안정적인 발전추세를 유지하고 있음. 해양제조업이 해양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연속 5년 동안 35%정도를 유지하고 있음
- 해양신항산업의 부가가치액은 전년대비 7.7% 증가했는데, 규모 확대에 따라 성장속도가 이전보다 완화되었으나 안정적 발전 단계에 접어들어
- 해양 서비스업 부가가치액이 해양생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의 47.2%에서 2019년의 60%까지 증가했음. 이 중 2019년 해양교통운수업의 부가가치액은 6,427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5.8% 증가했음

■ 해양경제 경영 수익 증가 및 대외개방 확대

- 해양관련 기업은 안정적인 경영수익을 유지하고 있는데, 2019년 해양관련 제조업의 영업수익이윤율, 코스트 이윤율, 자산이윤율은 전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임. 해양과학기술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면서 해양 노동생산성이 향상되어 10년 동안 1인당 12.2만 위안이 증가되었음
- 2019년 중국과 ‘해상실크로드’ 연선국가 간의 무역액이 전년보다 5.8% 증가했는데, 중-미 간 무역 갈등 속에 중국 해양관련 제품의 국제경쟁력을 계속 강화하고 있음

■ 해양경제 발전성과 향상, 민생복지 증진

- 해양레저산업은 양호한 발전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2019년 연해관광업의 부가가치액은 18,086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9.3% 증가했음
- 대중을 위한 고품질 레저오락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해양공원은 2011년의 12개에서 2019년의

48개까지 증가했고, 2019까지 10,000명당 누릴 수 있는 해양공원의 면적은 3.7ha에 달했음.

- 1인당 해양수산물 공급은 연속 5년 동안 23kg 이상 유지했음. 2019년 어민의 1인당 순수익은 2.8만 위안으로 전년대비 5.1% 증가했으며, 이는 같은 시기 농민보다 훨씬 높음

■ 해양경제 발전 잠재력 지속 강화

- 해양과학기술 혁신능력 제고. 해양과학기술에 대한 R&D 투입이 강화되면서 인재규모도 계속 확대되고 있음. 2019년에 중점 모니터링 해양과학연구기구의 연구·실험발전 경비가 2011년보다 2배 증가했으며, 과학기술자는 2011년보다 25% 증가했음. 2019년에 받은 특허권은 4,100개 이상인데, 이는 2011년 수량의 4배 가까이 됨
- 해양자원과 생태보호에 효과도 뚜렷함. 바다매립에 대한 관제가 강화됨에 따라 연안 해역에 대한 개발이 점점 늦춰지고 있고, 해역이용 구도도 개선되고 있음. 또한, 해양생태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므로 연안의 생태기능과 재해예방 기능이 점점 향상되고 있음. 이와 동시에 해수수질도 개선되고 있으며, 2019년 연안해역의 우량(1.2등급)수질 면적의 비중은 76.6%에 달해 전년대비 5.3%포인트 상승했음

(출처 : 自然资源部, 2020. 10. 21.)

https://mp.weixin.qq.com/s/qRJYBuNLHnGM_2EU3FQAkQ

선전시(深圳市), 글로벌 해양중심도시 구축을 위한 해양신성(海洋新城) 건설 계획

- 지난 10월 15일~18일에 선전에서 개최된 중국해양경제박람회에서 ‘14·5’계획 시기 선전시의 ‘해양신성’ 구축 비전이 공개되었으며, 이에 따라 세계 해양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계획임
 - 선전시가 계획 중인 해양신성은 주장커우(珠江口) 동안(东岸)의 선전 대공항(大空港)계획구역의 서북부에 위치해 있으며, 계획면적은 약 7.44km²임
 - 선전시는 해양신성을 향후 글로벌 해양 거버넌스의 전략 협력 플랫폼, 중국 해양생태문명 건설 시범구역 및 웨강아오대만구(粤港澳大湾区)의 해양과학기술혁신단지로 건설한다는 포지셔닝을 설정했음
- 구역 간의 협동발전 촉진
 - 해양신성은 웨강아오대만구의 산업자원을 활용해서 협동발전을 추진할 것이며, 이와 동시에 선전 첸하이(前海) 서커우(蛇口) 자유무역시범구와 협동발전을 도모할 것임
 - 해양신성이 위치한 대공항신성은 국제회의·전시회, 국제무역, R&D 등을 중심으로 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할 계획임
- 향후 해양신성은 세계국가와 심층적인 산업협력 관계를 조성할 것이고, ‘2+3’ 해양산업 클러스터를 육성할 것임
 - 해양고급설비 : 심해잠수정(Bathyscaphe) 핵심기술과 장비, 수중건설로봇 및 해양광물 탐사기술과 장비 등의 산업 체인을 육성함
 - 해양전자정보 : 해양 원격탐사와 네비게이션, 심해 센서기, 심해관측, 신형 해양관측위성 등의 핵심기술과 장비를 중점적으로 개발하고, 협력으로 심해과학연구기지를 설립함
 - 현대 해양 서비스 : 해양 서비스, 해양문화관광, 해양 고급 비즈니스 등을 발전시키고, 해양 해운서비스, 해양 금융서비스 및 해양요소 거래 서비스를 위한 플랫폼을 구축함
 - 해양생태환경 보호 : 해양환경 모니터링 기술, 해양생태기술 등 분야에서 국내외 관련 기업과 기구를 유치하며, 해양생태환경보호 기술협력센터 설립과, 해양생태환경보호 협력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함
 - 해양신에너지 : 국제 해양신에너지의 선진기술 발전추세에 따라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natural gas hydrate), 파동에너지 개발·이용을 중심으로 핵심기술과 설비를 개발하여, 자주적인 지적재산권을 가진 해양 신에너지 산업체계를 구축함
- 선전시는 약 1km²의 중국-유럽 해양산업단지를 ‘해양신성’ 건설의 시범사업으로 계획했음.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진 해양과학기술 혁신단지를 구축하고, 해양산업, 해양자원, 해양서비스 등 분야에서 유럽과 심층적인 협력을 추진하여 해양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할 계획임

(출처 : 观沧海, 2020. 10. 19.)

<https://mp.weixin.qq.com/s/LSaVUZj169snrPNja8KkTw>

「중국 도시 해양발전지수 보고(2019)」 발표

■ 최근 남방재경전매체그룹(南方财经全媒体集团) 산하의 싱크탱크는 「중국 도시 해양발전지수 보고(2019)」를 발표했음

- 이 보고서는 상하이, 선전, 광저우, 톈진 등 28개 연해도시¹⁾를 선정하여, 해양경제 활력, 해양 대외개방 수준, 해양자원 수준, 해양과학기술 혁신력 및 해양문화의 5개 분야를 중심으로 지표를 구성하여 평가했음
- 평가 결과에 따르면, 상하이, 칭다오와 광저우는 각각 중국 동부 해양경제권, 북부 해양경제권과 남부 해양경제권의 대표도시로서 톱3를 차지했음
- ‘글로벌 해양중심 도시’ 건설을 제시한 7개 도시²⁾는 10위 권 안으로 선명한 도시 특색과 경쟁력을 선보였음

■ 해양경제 활력, 칭다오와 상하이 1, 2위 차지

- 해양경제 활력은 도시가 해양경제발전 과정에서 보여준 능력과 잠재력을 가리키는데, 칭다오의와 상하이가 각각 1위, 2위를 차지했음
- 다음으로 다롄, 광저우, 푸저우, 톈진과 선전이 차지했는데, 이들 도시의 해양관련 시장주체 수는 모두 7,000개를 넘어서고 있음
- 해양경제 활력이 강한 톱 10위 도시 중에 남부 해양경제권에 위치한 도시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웨강아오대만구 건설 추진에 힘입어 남부 해양경제권의 선도역할이 점점 드러나고 있기 때문임

■ 해양 대외개방에 있어 상하이, 광저우와 선전 앞장서

- 해양 대외개방 수준은 지역의 해양관련 시장활동의 개방수준 및 국제화 수준을 통해 평가하는 지표임
- 상하이, 광저우와 선전의 대외개방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상하이항의 개방수준이 높고, 선전과 광저우는 외향적 경제의 특색이 뚜렷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특히 향후 웨강아오대만구 내의 해상통로와 국제통로의 개발로 광저우와 선전의 수출입 무역과 관광기능이 더욱 강화되어 국제화 될 것으로 기대됨

■ 저우산과 다롄의 해양공간자원 가장 풍부

- 해양자원 수용력은 해당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해양자원으로 사회경제의 발전을 유지할 수 있고, 해양경제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기본자원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데, 저우산과 다롄의 해양자원이 가장 풍부한 도시로 선정되었음

1) 28개 연해도시: 상하이(上海), 선전(深圳), 광저우(广州), 톈진(天津), 칭다오(青岛), 다롄(大连), 닝보(宁波), 저우산(舟山), 난통(南通), 둥관(东莞), 옌타이(烟台), 취안저우(泉州), 푸저우(福州), 샤먼(厦门), 장저우(漳州), 온저우(温州), 타이저우(台州), 옌청(盐城), 련윈강(连云港), 후이저우(惠州), 주하이(珠海), 잔장(湛江), 장먼(江门), 탕산(唐山), 베이하이(北海), 하이커우(海口), 웨하이(威海), 르자오(日照)

2) 상하이(上海), 선전(深圳), 톈진(天津), 칭다오(青岛), 다롄(大连), 닝보(宁波), 저우산(舟山)

- 저우산은 대표적인 군도 도시로서 2만㎡의 관할해역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2011년에 ‘저우산 군도 신구’로 지정되면서 관련 정책의 힘을 입어 해양생산총액이 GRDP의 65%를 초과했음
- 다롄시는 28개 도시 중에 가장 긴 대륙해안선(2,000km 초과) 및 가장 큰 관할해역 면적(2.9만 ㎡)을 가진 도시로 이용 가능한 해양공간자원과 생물자원이 매우 풍부한 편임
- 웨하이(威海)는 수산물 생산량으로 3위를 차지했고, 잔장(湛江), 장저우(漳州)와 푸저우(福州)는 모두 어업자원과 해역공간자원에 우세를 보여주었음

■ 칭다오와 상하이, 뛰어난 해양과학기술 혁신능력 보유

- 칭다오와 상하이는 해양관련 특허권과 해양관련 핵심 학술지 게재 논문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서 해양과학기술 혁신능력을 가진 2개 도시로 평가되었음. 특히 칭다오의 블루벨리는 중국 국내 최고의 해양특색 첨단기술 R&D 산업 클러스터로서 칭다오의 해양과학기술 연구 성과의 상업화 전화에도 적극적으로 작용되고 있음
- 연구결과에 따르면, 해양과학기술 혁신과 경제활력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톱 9의 도시가 거의 같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해양자본과 기술 등 생산요소의 유동방향이 고도로 일치되기 때문임

■ 상하이, 칭다오 해양문화 매력에 각각 1, 2위 차지

- 해양문화 매력은 도시가 해양산업 발전으로 인한 외부(관광객, 매체 등)의 관심도를 의미함. 상하이와 칭다오는 관광업체 수와 관광업 매출액 및 매체 보도량으로 1, 2위를 차지함
- 평가에 따르면, 해양관련 제조업 규모가 비교적 작은 연해도시에서는 해양관광의 도시화를 추진하는 것이 고품질 발전의 또 하나의 경로로 작용하게 됨

■ ‘글로벌 해양중심 도시’ 추진 7개 도시는 모두 10위 권

- 선전(深圳) 해양경제의 대외개방 수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칭다오는 해양경제 혁신발전 시범도시로서 강대한 해양연구 역량을 보유하고 있음
- 저우산(舟山)은 도시면적, 인구 수량과 경제 총량 등 규모성 지표에서 대부분 연해도시에 미치지 못했지만, 중국 최초의 해양경제 분야의 국가급 신구로서 우수한 발전구조를 가지고 있고 각 해양관련 지표의 수준도 높은 편임

(출처 : 21世纪经济报道, 2020. 10. 26.)

<http://www.hellosea.net/News/11/2020-10-26/79060.html>

「싼야시(三亚市) 잠수활동 산호초 생태파괴 손해보상 방법」 발표

- 최근 싼야시 정부는 「싼야시 잠수활동 산호초 생태파괴 손해배상 방법」(이하 「방법」으로 약칭)을 발표했음
- 이번에 발표된 「방법」은 2017년에 발표된 「싼야시 잠수활동 산호초 생태파괴 손해보상 방법」에 대한 개정안으로 자연자원부 제1해양연구소 연안과학·해양발전전략연구센터의 연구팀이 작성한 것임
- 이 「방법」은 싼야시 해양생태파괴 손해보상 제도의 핵심내용을 포함시켰으며, 파괴된 산호초의 생태복원을 위한 맞춤형 경제보상 정책제도를 포함하고 있음
- 이번 개정된 「방법」은 해양생태 보상의 싼야 모델을 1.0버전에서 2.0버전까지 업그레이드한 것으로 2.0버전은 다음과 같은 7개 특징을 보여주고 있음
- 첫째, 행정허가와 환경경제 수단 병행의 해양생태자원 보호·복원 제도를 수립했음
- 둘째, 생태환경 손해에 근거한 생태보상과 복원 제도를 수립했음
- 셋째, 전액보상 제도를 수립했음. 생태보상 자금이 생태환경 손해보다 적으면 안 되고, 생태복원 자금이 생태보상 자금보다 적으면 안 됨. 복원지표는 손해지표보다 적으면 안 됨
- 넷째, 생태환경 손해에 대한 검증과 이의제기 체계를 수립했음
- 다섯째, 생태보상의 신용관리 제도를 설립했음
- 여섯째, 생태복원 방안 심사 및 전 과정 감도 제도를 수립했음
- 일곱째, 정부가 생태복원의 책임지는 제도를 수립했음

(출처 : 海洋知圈, 2020. 10. 22.)

<https://mp.weixin.qq.com/s/kYtQOq6ElPagS3euVJkcqQ>